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ksat_ipsi/products/10498995073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바다사자가 마늘요리해

EBS 독서 연계 대비

수능완성편

2025

EBS 독서 연계 대비 원조 맛집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연계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

2025

표지

머리말

2025학년도 EBS 배경지식의 이해입니다.
올해는 더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여 돌아왔습니다.

본 교재는 EBS의 배경지식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매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너무 과하게 준비하면 이에 의존하게 되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공부량과 배경지식의 활용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가 약하거나, 속도감 있는 풀이를 위한 경우에는 배경지식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 표시된 중요도 역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아닌,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 중요도입니다.

EBS에는 대략 120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문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문에 힘을 주어야 하며, 그 힘을 주어야 하는 지문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EBS 원본 지문에서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별하여 '토픽'으로 만든 후, 각 토픽에서 연계될 수 있는 지식이 서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관련된 기출문제와 LEET를 표기하여 어떤 주제를 평가원이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관련 기출지문의 배경지식을 삽입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배경지식을 공부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공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경우, 부담없이 출판팀 연락처(ksat.ipsi@gmail.com | 010-5969-41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입시연구소 | 이배이 출판팀 드림
감사합니다.

커리큘럼

자료 구분	설명
온라인 자료	모든 판매처에서 전자책상으로 판매되는 자료
배포 자료	6월, 9월 평가원의 시행에 따른 경향 해석을 반영한 자료로, 구매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자료 이메일로 통해 배송되는 구매처(예: 네이버)에서 구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forms 인증 후 이메일로 배송 https://forms.gle/AQrfQ5c1jgF8z4ct7

*출판 일정 등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명	종류	컨셉
이배이	수특(상/하), 수완 총 3종	EBS 배경지식 학습서, 선별된 지식 학습
이배이 에센셜	1종	EBS 배경지식 중 핵심 지식 선별 학습서
이배이 헤리티지	1종 ~ 2종 (미정)	역대 이배이 시리즈 중 연계 지문 선별
지문별 중요도	수특/수완 총 2종	지문/토픽별 중요도 자료
짜라시 자료	미정	수능 직전 출제위원 짜라시에 대응한 자료
최종 예상소재	수능 총 1종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소재(3~10개) 선별
지식사전	수특/수완 총 2종	지문 토픽과 지식 모음

	온라인 자료	배포 자료
3월	이배이 수특편 상/하	
4월	이배이 헤리티지 수특편*	
5월		지문별 중요도
6월		EBS 지식사전 (수특)
7월	이배이 수완편	
8월		지문별 중요도
9월		EBS 지식사전 (수완)
10월	이배이 에센셜	짜라시 대응 자료
11월		최종 예상 소재

*'이배이 헤리티지'의 경우, 수특/수완 분권되거나, 합본으로 출판됩니다.

이베이 2025 수능특강 상편 *페이지는 수능특강 독서편 기준

지문번호	pg	주제
2025개념01	9	자기선택적 독서와 책 선정 전략으로서 북매치 전략
2025개념02	11	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노직의 사상과 최소 국가
2025개념03-가	13	효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뷰캐넌과 털록의 모형
2025개념03-나	13	애로가 제시한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불가능성 정리
2025개념04	17	연륜 연대법의 원리
2025개념05	21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2025개념06	24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로 인한 영향
2025개념07	27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미의 본질과 의미 내용
2025개념08	31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2025개념09	36	예술 제도론에 대한 이해
2025개념10	38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고프먼과 리프킨의 관점
2025개념11	41	필서의 발견 과정과 필서가 규칙적인 필스를 방출하는 원리
2025개념12	45	다산 정약용의 초서 독서법
2025개념13	47	인간의 행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콜먼의 합리적 선택 이론
2025인예01	54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2025인예02	58	크로노토프의 개념 및 특징과 연극에서의 크로노토프
2025인예03	62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의 의미 변화와 특성
2025인예04	67	보들레르 미학의 현대성 개념과 마네의 예술 세계
2025인예05	71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2025인예06	76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타리가 주장한 생태 철학
2025인예07	81	지멜의 예술론의 특징
2025인예08	85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타틀린의 구축주의
2025인예09	88	《봉래의》의 내용과 연행 방식
2025인예10	93	면역 패러다임으로 가능한 근대의 주권 개념에 대한 에스포지토의 비판과 새로운 가능성 모색
2025인예11	97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2025인예12	101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
2025인예13	106	칸트 철학에서 미와 숭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숭고의 철학적 의미
2025사문01	111	아웃소싱의 개념과 특징
2025사문02	115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 이론에 대한 이해
2025사문03	120	물권변동의 원칙과 담보 물권의 특징
2025사문04	124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와 예외적 사례
2025사문05	129	지구 환경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2025사문06	134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추정
2025사문07	138	멜서스와 솔로의 경제 성장 모형
2025사문08	143	채무의 변제와 관련한 법률 사항
2025사문09	148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기업의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
2025사문10	152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본 무제한적 노동 공급과 노동조합
2025사문11	156	예금 계좌 대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이해
2025사문12	159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전략
2025사문13	164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관계

이베이 2025 수능특강 하편 *페이지는 수능특강 독서편 기준

지문번호	pg	주제
2025과기01	170	기계 학습의 개념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분류
2025과기02	174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칸토어의 무한 개념
2025과기03	179	미세 조류에 의한 바이오디젤 생산
2025과기04	183	군집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다양한 개념
2025과기05	188	세포의 증식 과정을 통한 암세포 증식 이해
2025과기06	192	다양한 대기 조건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굴당함의 음속 측정
2025과기07	196	19세기 독일의 지자기 연구의 전개 과정
2025과기08	200	콤프턴의 X선 실험을 통한 콤프턴 효과
2025과기09	203	점도의 의미와 점도에 따른 유체의 분류
2025과기10	206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2025과기11	210	과포화를 통한 결정화 기술의 분류와 결정 성장 이론
2025과기12	214	주판과 컴퓨터에서 보수를 이용하는 연산
2025과기13	218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2025통합1-가	22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방주의자들의 미국 정치 체제 구상
2025통합1-나	223	토크빌이 분석한 19세기 미국 민주주의
2025통합02-가	228	신사를 중시한 소식의 사의화
2025통합02-나	228	박지원, 이익, 윤두서의 화론
2025통합03-가	232	조선의 대동법의 시행 과정과 그 결과
2025통합03-나	232	현대의 조세의 기본 원칙
2025통합04-가	236	동시 게임으로서 과점 시장에서의 내시 균형
2025통합04-나	236	과점 기업의 행동에 대한 쿠르노 모형의 설명과 균형
2025통합05-가	241	형법의 책임 원칙과 그 적용
2025통합05-나	241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의 적용
2025통합06-가	245	국제법의 개념과 법원
2025통합06-나	245	외기권 조약과 달 조약
2025통합07-가	250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의미와 이들 사이의 관계
2025통합07-나	250	민사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의 유형과 이들이 적용된 사례
2025통합08-가	254	계약의 도덕성과 효율적 계약 파기론
2025통합08-나	254	급부 의무의 유형과 채권자의 협력 의무의 법적 성질론
2025통합09-가	259	쿤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2025통합09-나	259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피어어벤트의 주장
2025통합10-가	263	통증의 종류와 통증을 유발하거나 완화하는 물질
2025통합10-나	263	마취제와 진통제의 특징
2025통합11-가	268	EPR 역설의 개념
2025통합11-나	268	상자 속의 시계 사고 실험과 이에 대한 보어의 반박
2025통합12-가	272	로지스틱 회귀의 개념과 활용
2025통합12-나	272	서포트 벡터 머신의 개념과 활용
2025실전01-01	280	읽기와 병행하는 쓰기의 유형과 필요성
2025실전01-02	283	윤리적 판단에 대한 직관주의와 정의주의의 주장
2025실전01-03	286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미헬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2025실전01-04	289	지구와 태양에 대한 아리스타르코스의 계산
2025실전02-01	295	어휘 지식과 독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가설의 입장
2025실전02-02가	298	국가의 중립성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2025실전02-02나	298	국가의 중립성에 반대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
2025실전02-03	303	마음 읽기에 주목한 데넷의 지향계 이론의 주요 개념과 입장
2025실전02-04	307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촉발성

이배이 2025 수능완성편 *페이지는 수능완성 언어와 매체편 기준

지문번호	pg	주제
2025유형01	8	문해력의 개념의 확장과 성인에게 필요한 직업 문해력
2025유형02가	13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2025유형02나	14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2025유형03	24	IMF의 운영 방식과 융자금의 구성 및 신용 공여 조건
2025유형04	32	운동량 및 충격량의 개념과 충격량 공식이 의미하는 것
2025모고01-01	134	교과서에 포함된 글의 분류와 제재의 선정 방법
2025모고01-02	136	4성부로 화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화성의 진행
2025모고01-03가	137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주장한 퍼트남
2025모고01-03나	137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
2025모고01-4	140	풍력 발전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2025모고02-01	158	언어 개념의 특징과 언어 개념에 대한 공자, 순자, 노자, 장자의 생각
2025모고02-02	160	동조 현상에 대한 원인과 분류
2025모고02-03가	162	남세균으로 인한 영향과 남세균의 특징
2025모고02-03나	162	녹조 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5모고03-01	182	학습을 위한 독서
2025모고03-02가	184	기존의 귀납법을 보완하기 위한 베이컨의 참된 귀납법
2025모고03-02나	184	고전적 연역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데카르트의 생산적인 연역법
2025모고03-03	186	형법상 과실의 개념과 과실범 처벌의 기준
2025모고03-04	189	단백질의 구조와 단백질 접힘의 원리
2025모고04-01	210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2025모고04-02가	213	실업의 종류 및 발생 원인
2025모고04-02나	213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유 시장주의자들과 케인스의 입장
2025모고04-03	216	유압식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와 탠덤 마스터 실린더의 작동 과정
2025모고05-01	238	초연결 사회에서 현대인이 겪는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읽기의 순기능
2025모고05-02	240	몽타주 사용에 대한 예이젠시테인과 바쟁의 상반된 입장
2025모고05-03	242	리스먼이 주장한 현대 사회의 타인 지향적 성격과 자율형 인간의 중요성
2025모고05-04	244	인체 진단용 초음파의 반사와 산란 현상 및 초음파 검사 시의 주의 사항

2025 유형01 수완 8p	문해력의 개념의 확장과 성인에게 필요한 직업 문해력
-----------------------	-------------------------------------

이 글은 문해력의 개념이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고 성인에게 필요한 능력인 ‘직업 문해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문해력은 텍스트를 그대로 해독하기와 문자로 표현하기를 중시했지만, 읽기를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면서 ‘기능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기능적 문해력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해력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확장된 의미의 문해력은 성인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직업 문해력’이라고도 한다.

연계 기술	
평가원	독서법 지문
LEET	

문해력의 영어 표현인 리터러시(literacy)의 어원인 라틴어 ‘litteratus’는 로마 시대에는 ‘지적 능력’, 중세 초기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어(母語)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기·쓰기 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읽기·쓰기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는 텍스트를 문자 사용법에 따라 문자 그대로 해독하는 능력을 갖춘 후 이를 활용하여 문자로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문자의 사용 능력은 지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초적 문해력’이라고 한다.

읽기를 단순한 해독이 아닌,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면서 문해력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의미 구성의 주체인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대두된 개념이 ‘기능적 문해력’이다. 기능적 문해력은 이전 문해력의 개념에 정보의 비판적 해석과 재구성 능력이 더해진 것이다. 기능적 문해력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 직업 수행,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다. 확장된 문해력의 개념은 영화, 정치, 환경 등 사회적 대상들도 텍스트로 두고 의미를 구성하는 영화 문해력, 정치 문해력, 환경 문해력 등으로 나타나며 그 분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영화와 정치, 환경은 텍스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핵심 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사회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확장된 의미의 문해력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지만, 특히 성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직업 문해력’이라고도 한다. 직업 실무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창의성, 리더십, 협상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의 기본 토대가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기술을 습득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가공하는 능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러한 능력에도 문해력이 핵심이 된다.

〈보기〉

르니 홉스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매체 환경에서 정보의 구성 주체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디지털 매체 문해력’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매체 문해력이 하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능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먼저 ‘접근’은 디지털 매체의 사용법을 알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분석 및 평가’는 디지털 매체의 메시지를 대상으로 메시지의 신뢰성과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창조’는 목적, 수용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며, ‘성찰’은 자신의 디지털 매체 사용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행동’은 공동체의 발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2025 유형02가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수완 13p	
<p>이 글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간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오복을 누리고 육극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행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으며, 행복은 하늘이나 귀신이 내려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가에서는 행복이 외부적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있으며, 외적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가에서는 인간적 즐거움을 자연법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며, 양생을 통해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p>	

연계 기출	
평가원	199411, 200406, 201309, 201509B, 201806
LEET	-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幸福)’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만족, 즐거움, 보람, 쾌감 등의 좋은 감정이 있으며, 불안, 우울, 불쾌 등의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이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은 행복이 어떤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다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과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간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오복(五福)*을 누리고, 절대로 당하고 싶지 않은 육극(六極)*과 같은 일은 피하는 것이었다. 행복이란 말에서 행(幸)은 운수가 좋은 것을 뜻하고, 복(福)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나 귀신이 내려 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복은 모두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에 가깝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생각하며 지금 불행하더라도 행복을 기다리거나, 선(善)을 쌓고 악(惡)을 행하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보상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민간의 행복관과 달리 유가에서는 행복을 인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 공자는 행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즐거움[樂]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벗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도(道)를 알

고 실천하는 즐거움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적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지와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제자인 안희가 누추한 거리에서 한 표주박의 물과 한 끼 밥으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안다고 칭찬했다. 민간의 관점에서 보면 안희는 육극을 피하지 못한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공자는 안희의 도덕적 삶이 행복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공자가 ‘인(仁)’을 이루기 위해 강조한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욕망을 의지력으로 억제하고 ‘예(禮)’를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도가에서는 유가의 ‘예’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고 인간적 즐거움의 근원인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이를 위해 도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양생(養生)’이다. 일반적으로 양생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몸을 기르는 것을 ‘양형(養形)’이라고 하고, 정신을 기르는 ‘양신(養神)’과 구분하였다. 장자는 양형만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장자를 계승한 혜강은 ‘본성을 잘 닦아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몸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하여,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양생의 요체로 보았다.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고통은 외부에서 육체로도 오고 정신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강은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태평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노자가 말했던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少私寡欲]’으로 귀결된다.

*오복: 『서경』에서는 장수, 부유, 건강, 덕을 닦음, 편안한 죽음
을 이르지만 민간에서는 장수, 부유, 건강, 귀함, 자손 많음을
이름.
*육극: 번사(變死)와 묘사(夭死), 질병, 근심, 가난, 악함, 약함
을 이름.

기출 속 배경지식

동양 철학자의 길에 대한 생각

유학자들에게 길은 백성을 통치하는 독,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정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양식, 전체 왕권 사회에서의 길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방(關防)과 높은 문루를 세워야 하고, 도로 표지를 만들며 정자목(亭子木)도 심어야 했다. 그러나 도가(道家)들의 생각으로는 길이란 형식적이고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자연 법칙에 따라 굴곡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 동양 사회의 길이다.

1994 수능

위기지학

위기지학(爲己之學)이란 이른바 15세기의 초기 사림(士林)과 기묘 사림이 『소학(小學)』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위인지학(爲人之學)과 함께 『논어(論語)』의 '헌문편(憲問篇)'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즉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학자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북송 대의 유학자인 정이(程頤)는 다음과 같이 이 말의 의미를 부연했다. "위기(爲己)란 자아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인(爲人)이란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으나, 결국은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그 귀결은 자아의 상실일 뿐이다."

2004 6평

공자의 이상적 인간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聖人)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2013 9평

전국 시대의 맹자와 공자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 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015 9평 B

유학의 수기치인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2018 6월 평가원

연계 가능 토픽

2025 인예38	동아시아의 행복	☆☆
<p>동아시아 문화권의 민간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오복(五福)을 누리고, 절대로 당하고 싶지 않은 육극(六極)과 같은 일은 피하는 것이었다. 행복이란 말에서 행(幸)은 운수가 좋은 것을 뜻하고, 복(福)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나 귀신이 내려 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복은 모두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에 가깝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생각하며 지금 불행하더라도 행복을 기다리거나, 선(善)을 쌓고 악(惡)을 행하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보상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복: 『서경』에서는 장수, 부유, 건강, 덕을 닦음, 편안한 죽음을 이르지만 민간에서는 장수, 부유, 건강, 귀환, 자손 많음을 이룸. • 육극: 변사(變死)와 요사(夭死), 질병, 근심, 가난, 악함, 악함을 이룸. 		
<p>[1] 오복(五福)의 개념 오복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는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으로 구성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壽):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장수는 건강과 행운을 상징하며, 가족과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 부(富): 부유함을 뜻한다. 물질적 풍요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공동체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 강녕(康寧): 건강하고 평안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를 포함하며,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유효덕(攸好德): 덕을 좋아하는 것, 즉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한다. • 고종명(考終命): 자연사, 즉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평안히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통 없는 죽음과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뜻한다. 		

[2] 육극(六極)의 개념

육극은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극단적인 불행을 말한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요소들을 나타내며, 각각의 극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 **홍요절(凶夭折)**은 일찍 죽는 비극을 말한다. 이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준다.
- **질병(疾病)**은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질병과 고통을 의미한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따르게 된다.
- **근심(憂)**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과 불안, 걱정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근심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며, 심각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가난(貧)**은 경제적 결핍과 궁핍을 뜻한다. 가난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지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낮추게 된다.
- **악함(惡)**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말한다. 악한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약함(弱)**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3] 새옹지마(塞翁之馬)와 동양 철학

새옹지마는 "인생의 좋고 나쁨은 예측할 수 없으며,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도교와 불교의 무상(無常) 사상과 연결된다.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강조한다.

[4] 선행과 인과응보

동아시아 문화에서 선을 쌓는 것과 악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는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사상이다. 선을 행하면 연젠가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현세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고 사회의 윤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동서양 행복관 비교

동아시아의 행복관과 서양의 행복관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다. 서양에서는 행복을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신과 운명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차이는 각 문화권의 철학적, 종교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5-1] 고대 그리스 철학과 행복

-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Eudaimonia):**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유다이모니아'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삶의 목적과 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깊은 만족을 의미한다. 그는 행복을 '탁월한 활동'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 이성과 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Hedonism):**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 특히 정신적 쾌락에서 찾았다. 그는 고통의 회피와 마음의 평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 **스토아 철학의 '아타락시아'(Ataraxia):**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을 마음의 평온과 불굴의 정신에서 찾았다. 이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보다는 내부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5-2] 기독교와 행복

- **천국의 개념:** 기독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닌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신앙과 도덕적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현세의 고난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시험으로 여겨진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신과의 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신앙과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보았다.

✓ *Comment:* 종교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5-3] 근대 철학과 행복

- **칸트의 행복론:**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을 도덕적 법칙을 따르는 데서 찾았다. 그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 **밀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존 스튜어트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제창했다. 그는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